

2019 설 명절 감사 예배

우리 민족의 고유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 예배드립니다. 또한 오랜만에 멀리 살던 가족들도 만나게 되었는데, 감사한 마음으로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 예배 전 찬송 : 406장 / 곤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1. 곤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2.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총만하리니 주의 영원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3.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4.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 예배의 부름 (사회자) :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쉼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 23:1~3)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찬 송 : 384장 /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1.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2.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때도 족한 은혜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3.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크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 기 도 : 참석자 중 (없을시 사회자나 생략)

• 성경봉독 : 신명기 32장 7절 ~ 12절

• 말 씀 : 하나님을 기억하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40년의 광야 생활 끝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 이르러 이스라엘에게 지난날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잊어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눈앞에 약속의 땅이 보여지니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지금까지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금년 한 해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하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첫째,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자녀)을 삼으신 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9).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후 계속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일하셨습니다. 애굽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서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신 후에 애굽에서 탈출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광야생활 속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누구인지 잊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며 잊고 있었던 자신들의 정체성인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 속에서 바쁘게 살아가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 삼아주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말씀으로 약속해주시고 일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우리 삶에 역사하고 있음을 늘 기억하는 온 가족이 되길 소망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눈동자 같이 지키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10).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시고 지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광야라는 곳은 황무지였고, 짐승이 부르짖는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나 자연적인 방법으로 그 어떠한 수단으로도 그 많은 백성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살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곳에서 이스라엘을 감싸주시고 지켜 주시며 당신의 눈동자처럼 아껴 주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세상은 광야와도 같은 곳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없다면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황무지가 되고, 짐승이 울부짖는 살벌한 곳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고 앞으로도 지키실 것이니 “우리에게 주신 반드시 너를 건져주실 것” 이라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함께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 독수리 날개로 인도하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11- 12).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것은 독수리가 그 새끼를 품듯이 데리고 오셨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 어느 민족이나 사람도 아무것도 나지 않는 광야에서 40년을 살아남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심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나면, 광야와도 같은 곳에 버려진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선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하는데,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업어서 데리고 가신다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비록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와 같은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가정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역사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늘 기도하는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기도할 때 어떠한 고난 가운데도 함께하시고, 건져주실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형통의 은혜가 함께하는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 찬 송 : 314장 /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1. 내구주 예수를 더욱사랑 앞드려 비는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구주 예수를 더욱사랑 더욱사랑
2. 이전엔 세상낙 기뻐어도 지금내 기쁨은 오직예수 다만 내 비는말 내구주 예수를 더욱사랑 더욱사랑
3. 이세상 떠날때 찬양하고 숨질때 하느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말 내구주 예수를 더욱사랑 더욱사랑

•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폐합니다.